

2026년 10월 첫째 주, 구역 공과

35 흘러가게 하라,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 47장 1~12절(구약 1227)-

예배순서

• 찬송: 330/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370/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뭔가를 키우거나 재배해 본 적 있는가? (예: 식물, 동물, 곤충 등)

말씀 속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으로 무언가를 흘려보낸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수천 년을 이어온 차별과 억압의 선이 흐르기도 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끝없는 경쟁과 비교 의식, 자신의 쓸모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흘러 들어온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가 가정과 일터, 교회로까지 스며들면 사람들의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는 ‘사해(死海)’가 되고 만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은 역사상 가장 캄캄했던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다.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 절망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 환상을 보여주신다.

1. 은혜의 작은 물줄기가 _____이 된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겔 47:1~2)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거대한 강의 시작은 폭포수가 아니었다. 바위틈에서 물방울이 맺히듯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지극히 작은 물줄기였다. 그러나 천사가 일천 척(약 500m)씩 측량하며 나아갈 때마다 물은 발목, 무릎, 허리로 차올랐고, 2km를 지났을 때는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거대한 강으로 변했다. 외부 지류의 도움이나 갑작스러운 폭우 없이, 오직 성전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스스로 폭발적으로 팽창한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기하급수적인 확장성이다. 예수님이 남기신 12명의 제자는 로마 제국 앞에 미약해 보였지만, 결국 복음의 큰 강물을 이루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건넨 어설픈 초대와 말, 작은 선물, 기도 카드에 적은 이름 하나는 보잘것없는 바늘구멍 같아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틈을 통해 완고한 마음의 댐을 무너뜨리는 구원의 강물로 팽창시키신다.

2. 은혜의 강물은 _____로 흐른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겔 47:8) 거대한 강물은 옥토로 가지 않고, 척박한 아라바 광야를 지나 가장 낮고 죽어있는 ‘사해(死海)’로 흘러 들어간다. 염도가 일반 바다의 10배가 넘어 미생물조차 살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장소로 생수가 직진한 것이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방성(下方性)’을 가지듯, 은혜의 영적 속성도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스스로 잘난 줄 아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격 없고 상처로 패인 고집불통의 마음 발을 향해 맹렬히 달려간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이성적이라 복음이 안 먹혀”, “너무 꼬여있어 안 돼”라며 내 마음대로 은혜가 흐를 사해를 골라내고 밸브를 잠근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가장 완벽한 사해 같았던 바울은 은혜에 닿아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복음이 가장 시급한 곳은 역설적으로 복음을 강하게 밀어내는 곳이다. 선부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완고한 자를 향해서도 수로를 활짝 열어두는 넉넉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3. _____에 닿기만 하면 살아난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겔 47:12) 은혜의 강물이 사해에 쏟아지는 순간,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며 강 좌우에 치유의 잎사귀를 가진 생명나무가 자라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환상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아 실망할 때가 많다. 기도로 품고 다가갔지만 오히려 화를 내거나 튕겨내는 사람들을 보며 지치기도 한다. 이 환상은 속도가 아니라 ‘결과의 확실성’을 보여준다. 콩나물시루에 부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 물방울이 스치는 동안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한 서툰 복음과 섬김이 다 바닥에 쏟아진 것 같아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스며들고 있다. 사해를 살려낸 것은 에스겔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성소를 통하여 나온 물’ 자체의 능력이었다. 내가 설득해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고, 끊임없는 기도와 따뜻한 안부로 밸브를 열어두면 마침내 굳은 자아를 쪼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눈앞의 현실에 속아 씨 뿌리기를 멈추지 말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

나눔과 기도

-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변화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자.